

풍 경

화성시립도서관 정보소식지

Volume 40

•
Winter, 2019





도서관 풍경 제40호

화성시립도서관

태안도서관 · 삼괴도서관 · 병점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동탄북함문화센터도서관 · 송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작은도서관 · 진안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송림이음터도서관 · 남양도서관

편집위원 김상일, 김보라, 이재훈, 최혜순, 이혜인, 홍익현, 오소정, 김민지, 정윤지, 김준형, 유정미 **발 행 일** 2019년 12월 06일 **발 행 처** 화성시문화재단
편 집 화성시립도서관 **발 행 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홈페이지** <http://www.hscitylib.or.kr>

Contents

Volume 40. Winter 2019

화성시립도서관 정보소식지 풍경

PART 1	도서관의 뉴스	봉담도서관 개관 10주년 '봉도야, 열 살을 축하해!'	4
		제56회 IN 부산, 전국도서관대회를 가다!	6
PART 2	도서관의 온도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리뷰	8
		특화도서관 남양도서관	10
		사진으로 보는 프로그램	
		• 동탄북함문화센터도서관 '나의 첫 번째 자유여행'	12
		• 태안도서관 '정해영 작가의 가면이야기'	12
		•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동지 어린이 직업체험	13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지역사회 꿈을 잇는 사다리'	13
PART 3	도서관의 시선	트렌드 이슈 2019 올해의 이슈	14
		사서칼럼 작은 행성을 위한 튜베리의 용기	16
		사서칼럼 어디에나 도서관	18
		세렌디피티 2019 올해의 책	20
		도서관 사서의 북컬렉션	22
PART 4	도서관의 계획	12월 도서관 소식	25
PART 5	도서관 이용안내	알면 편한 도서관 서비스	29
		도서관 이용안내	30
		우리 동네 도서관 지도	31

봉담도서관 개관 10주년

봉도야! 열 살을 축하해!!



봉담도서관이 개관10주년을 맞이했다.

문화관련 시설이 부족하던 지역에 도서관이 개관한다는 알리는
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었을 것.

2009년 12월 23일,

잘 정리된 서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도서관이 개관했다.

봉담도서관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자료실을 1층에 배치하여 학부모와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영어자료실이 별도로 운영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큰글자·점자·촉각·음성도서를 비치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문턱이나 건물단차를 없애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시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봉담도서관은 알찬 장서 구성으로 이용자가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선사했다. 독서교실, 인문학 프로그램 등과 독서행사들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여행'이라는 주제를 도서관만의 테마로 선정해 여행정보서가 구성, 여행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역민들의 독서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봉담도서관. 그동안 도서관과 함께 해 온 시민들과 지나온 시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안무, 연기, 댄스, 보컬을 하나의 스토리로 결합한 종합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뮤지컬 하모니이즈(Harmoniz) 공연을 시작으로, 한신대학교 재능기부 시민 열린 음악회, 화성 콘체르트하우스의 앙상블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슈퍼 거북』 유철화 작가의 강연, 엄마와 쿠키 만들기, 아트 에코백 만들기, 캘리그래피, 북아트 체험 등 다양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21일 토요일 1층 로비에서는 열 돌을 맞아 10년의 발자취가 담긴 영상 상영회, 떡잔치도 열린다고 하니 참가 후 '10th Happy Birthday 축하메시지 남기기' 코너에서 축하메시지를 남겨 보아도 좋겠다.



구분	명칭	운영내용	비고
전시	12.3(화) ~ 12.27(금)	〈방방이〉 원화 전시	1층 로비
공연	12.14(토) 15:00 ~ 16:00	개관10주년 하모나이즈(HARMONIZ) 공연	다목적홀(B1)
	12.21(토) 14:00 ~ 15:00	개관10주년 콘체르트하우스 앙상블 공연	
	12.21(토) 17:00 ~ 18:00	개관10주년기념 시민 열린음악회(독창 및 독주)	
강연	12.21(토) 10:00 ~ 12:00	〈슈퍼거북〉 유설화 작가와의 만남	문화교실 1
일일특강	12.14(토) 10:00 ~ 12:00	엄마와 함께하는 10주년 쿠키 만들기	
	12.21(토) 10:00 ~ 12:00	내가 그리고, 만드는 10주년 아트 에코백	문화교실 2
	12.21(토) 13:00 ~ 14:30	크리스마스 10주년 북만들기	문화교실 1
체험부스	12.21(토) 13:00 ~ 16:00	10주년 감성손글씨 캘리그라피 체험	1층 로비
행사	12.21(토) 13:00 ~ 16:00	10주년 북아트 체험	
	12.21(토) 13:00 ~ 16:00	10주년 기념 풍선아트 체험	다목적홀(B1)
이벤트	12.10(화) ~ 12.27(금)	10 th Happy Birthday 축하메세지 남기기	1층 로비
	12.17(화) ~ 12.20(금)	10주년기념 도서 반짝 2배 대출	각 자료실
	12.21(토) 13:00 ~ 16:00	열돌, 축하 떡잔치	다목적홀(B1)
	12.21(토) 09:00 ~ 18:00	봉담도서관 <10년의 발자취> 영상 상영	1층 로비
간담회	12.21(토) 13:00 ~ 15:00	이용자 간담회 및 다과회	다목적홀(B1)

2019년 제56회 IN 부산, 전국도서관대회를 가다!

전국도서관대회는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용자를 위한 정보, 교육, 문화를 제공하는
전국의 사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도서관계의 최대 규모 행사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해 1962년부터 시작된 전국도서관대회는
올해 56년째를 맞아 10월 16일~18일, 3일간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되었다.



2019 제 56 회 전국도서관대회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도서관의 역할

2019.10.16.수 - 10.18.금 부산광역시 벅스코 BEXCO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만난 전국의 사서들

지난 10월 16일, 전국 각지의 다양한 도서관의 사서들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벅스코를 찾아왔다. 화성시립도서관내 사서들 10여명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벅스코 내 도서관대회가 열리는 컨벤션홀에는 많은 사서들 및 도서관관계자들로 붐볐다. 먼저, 2박 3일간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자 등록을 진행하였다. 정식 참가자가 된 사서들은 여러 협회 및 도서관들이 준비한 알찬 워크숍 공간을 둘러보며 주요업무 및 관심사에 따라 저마다 필요한 세미나를 선정하였다.



전시회내부

도서관의 최신 동향과 문화를 전시하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연결고리는 사람인 '사서'이다. 참가 사서들은 연결대상인 '이용자' 사이에서 정보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장비, 시스템, 출판사 등 최신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준비한 전시 회장을 찾았다.

RFID 시스템이 보편화된 도서관에서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줄 '자율주행 로봇' 기대

전파를 이용하여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도서관에 내장된 태그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인 RFID 시스템이 정착됨에 따라 요즘 도서관 이용자들은 스마트하게 도서를 이용하고 있다. 사서를 통하지 않고도 무인장비를 이용해, 회원임을 인증하고 원하는 도서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은 로봇이 주행하면서 서가의 도서들의 오배열, 태그오류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장서관리에 있어 불안전함을 해소하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이용자 선호도 검색시스템'

스마트시대의 이용자들은 웹을 통해 원하는 도서를 직접 희망도서로 신청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있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이용자 연령별 맞춤형 추천도서를 검색해주는 시스템이 나오므로써 사서들이 추천해주는 도서들에 더불어, 맞춤형 정보들까지 검색되어 제공된다면 더 풍부한 정보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사회 세미나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도서관의 역할을 소통하다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총 50여 건의 세미나,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표한 차세대 기술관련 워크숍이 눈에 띄었다. 도서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 있다. 여러 도서관들이 그 가치를 담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메이커스페이스이다. 메이커스페이스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위한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창작소를 말한다.

도서관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은 책과 연계해 목공,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활용해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이용자의 잠재성을 이끌어내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해 주며 전국적으로 도서관 곳곳에 전용 공간이 생기고 있다.

“도서관은 책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언제나 더 큰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창을 상징합니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

새로운 주제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전국도서관대회가 2020에도 전라북도 군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봉담도서관 사서 홍의현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리뷰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무한한 상상의 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들에게 출생과 동시에 무상으로 그림책을 지원하여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독서진흥운동이다.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보다 친밀한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부모에게는 육아에 필요한 정보와 독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했던 상반기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나치고 9월 16일 동탄다원아파트도서관의 책놀이 프로그램인 「소곤소곤 책놀이」를 시작으로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19년 하반기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이 13개 도서관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소곤소곤 책놀이’, ‘조물조물 책놀이’, ‘아가랑 책놀이’와 같은 책놀이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읽고 손유희, 신체놀이 등 다양한 놀이활동으로 스토리와 감상을 표현하여 독서 흥미를 키워준다. ‘그림책의 힘’, ‘아이들에게 엄마는 파도다’,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줄 인문학’, ‘우리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 ‘이렇게 예쁜 고양이’, ‘우리아이 그림책 어떻게 읽어줄까?’, ‘내가 더 커’, ‘엄마의 자존감 회복 수업’ 등 시기별 아동의 심리와 맞는 독서법을 알고, 엄마의 심리 건강까지 챙겨주는 다양한 부모강좌도 함께 진행되었다. ‘미미와 함께 행복한 옷 입기’, ‘모래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림동화 릴레이극’, ‘콧수염아저씨의 우당탕 하루’, ‘말괄량이 삐삐’, ‘동화낭독 콘서트’, ‘곰지와 왕 콧구멍’과 같은 인형극과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온 가족 대상으로 열렸다.

특히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오감 발달과 감성지수를 끌어올리는 책놀이 프로그램 등이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발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부모님을 비롯한 강연 참가자의 마음을 울리는 강연 내용으로 찾아온 다양한 저자 특강은 성인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히 책꾸러미만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도서관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진안도서관 사서 이재훈



화성시 최초 공공 도서관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남양도서관으로 나들이 떠나자!



남양도서관은 1994년 개관한 화성시 최초의 공공 도서관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다 개관 23년만인 지난 2017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남양도서관은 시청 소재지와 화성시 최초의 공공 도서관이자 직영도서관이라는 의미에 '향토'라는 주제를 더해 화성시와 남양읍에 관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과 화성시의 관련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자료실도 운영하고 있다.

눈에 띄는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추석에 진행되었던 '온가족이 함께 하는 오색 송편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당일 행사장에는 태풍링링의 영향으로 강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송편을 빚으러 오는 가족들로 붐볐다. 이날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점점 잊혀가는 명절의 풍습과 음식에 대해 배우고, 각 지역과 우리 지역의 명절 음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고장 자연학교



오물 조물 오색 송편 만들기

행사가 끝난 후 한 행사에 참가한 부모님중 한분이 “그동안에는 명절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명절 음식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우리 고장 자연학교'라는 프로그램도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도서관 주변에 있는 남양 역사공원의 동식물을 채집해 세밀화 그리기, 씨앗 엮서 만들기, 흙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남양도호부나 오리정과 같은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들은 “우리 고장의 자연을 탐구하면서 주변의 역사 이야기까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어요.”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화성시와 관련한 자료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남양도서관 3층 정책자료실로 가보자. 이곳에 가면 화성, 정책, 향토, 이옥 등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정책자료실의 흥미로운 정보를 마주하다 보면 애항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정책자료실

남양도서관은 2020년 '화성in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화성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에서는 화성시에 대한 지역 연구와 기록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아카이브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본다.

남양도서관 사서 유정미



도서관별 프로그램 리뷰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소울 작가와의 만남 “나의 첫 번째 자유여행”

누구나 첫 여행은 어렵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초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출발한 사람이 손을 잡아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초보 딱지를 뗄 수 있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 초보 여행자들을 위한 강연이 열렸다. 『중년에 떠나는 첫 번째 자유여행』, 『고등학교 대신 지구별 여행』을 펴낸 소울 작가가 소개하는 ‘나의 첫 번째 자유여행’은 10월 23일, 30일 총 2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만남에는 ‘완벽한 여행을 위한 준비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만남에는 ‘완벽한 여행을 위한 실전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배낭여행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나만의 여행법을 찾아내고 나만의 여행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었다. 추천 여행지, 저가항공 예약 방법, 효율적인 짐 꾸리기, 현명한 쇼핑법 등 다양한 내용들이었다.

마흔 살에 첫 배낭여행을 시작했다는 소울 작가는 스스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알게 되고, 또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즐거움과 열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자유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태안도서관

정해영 작가의 가면 이야기

인류의 시작 이래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한 욕구, 소망 그리고 힘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된 가면. 동서고금을 막론하며 사람들은 가면을 이용하여 기쁨, 슬픔, 간절함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태안도서관에서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가면』의 저자 정해영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 1인 인형극과 이용자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나만의 가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정해영 작가는 가면이란 무엇인지? 세계의 가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또 어떻게 『가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등을 인형극을 통해 풀어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보는 가면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혹은 따라 해보고 싶었던 가면을 만들어보았다. 이어진 발표시간에서 왜 이런 가면을 만들게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꼬끼리 귀나 돼지 코 등 여러 동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모아 만든 상상력 넘치는 가면을 만든 어린이도 있었고, 토끼 귀를 디테일하게 표현한 어린이도 있었다.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여한 어머니는 가면 만들기를 통해 아이의 요즘 관심사를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동지어린이 직업체험

가을햇살이 따스했던 10월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에서는 경기도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일환인 <동지어린이 직업체험>을 운영했다. 진로의 선택에 고민을 가진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5개 직업군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열었다.

10월 12일 진행 된 김민지 천체관측강사와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은 중학생 참여자의 호응이 가장 좋았다. 천문학 전공이 선택 할 수 있는 직업인 천문대에서 관측, 관측강사, 기상청, 과학자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진로선택에 대한 질의시간 이후 도서관 야외광장에서 천체 관측을 진행했다. 청명한 기상상태 덕분에 '직녀성', '백조의 눈' 등 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름달을 촬영해 보기도 했다.

11월 2일, 경기 방송에서 라디오 취재MC를 맡고 있는 조종민 아나운서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미래의 꿈이 아나운서인 친구들을 만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아나운서 발성 방법과 뉴스 대본 읽기 실습을 했다. 준비된 간이 뉴스데스크에서 실제 방송과 같은 대본을 읽어보고 교정 받는 생생한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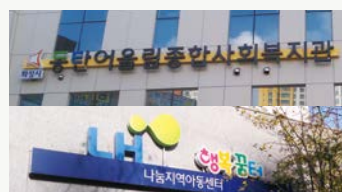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지역사회 꿈을 잇는 사다리'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지역사회 꿈을 잇는 사다리'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대출과 월 1회 독서습관 형성, 컬러테라피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적북적 책놀이 교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한 권의 주제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와 만들기 활동을 실시한다. 기관 담당자는 "수강생 집중도가 높고, 놀라운 결과물이 나온다."며 "수강생들이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체표현을 위한 음악놀이>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이다. '초등 고학년이 흥을 발산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기관 담당자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 강좌에 특화된 강사를 배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서관에 찾아올 수 없는 이들을 향한 능동적 유기체로의 도서관 서비스가 지속될 예정이다.



트렌드 이슈

2019, 올해의 이슈



JANUARY 황금돼지해 | 2019년은 육십갑자 상으로 기해년(己亥年)으로 흔히 '황금돼지해'이다. 기해년의 '기(己)'는 오방색 중 '노랑'이며, '해(亥)'는 '돼지'를 뜻해서, '황금돼지해'라고 부른다. 올 해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 출생을 상수를 기대했지만 속설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FEBRUARY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로,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을 조정,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MARCH 3.1운동 100주년의 해 | 올해는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화성 시에서는 기념식 '함께 기억하다'가 열렸다. 주요 민족 항쟁지였던 송산, 우정 지역에서 만세운동재현, 시가행진 등이 진행되었다. 도서관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짧은글 공모전'을 열어, 시민들과 함께 3.1운동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특히 공모전은 국가가 지정하는 '국민참여 기념사업'으로 선정되어 차후 100주년 기념 백서에 기록될 예정이다.



APRIL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 4월 15일 파리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이자, 혁명 이전까지 가톨릭 국가 프랑스의 정신적 지주였다. 이에 파리 시민 뿐 아니라 성당을 기억하는 전 세계인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화재로 침탑과 지붕이 무너졌으나 두 개의 종탑을 비롯한 성당의 기본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한다.



MAY 기생충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Palme d'Or 수상 | 5월 26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72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작들 중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냄새'를 소재로 빈부격차, 인간의 선과 악 등의 사회문제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특히 올 해는 한국영화계 10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인정받게 된 큰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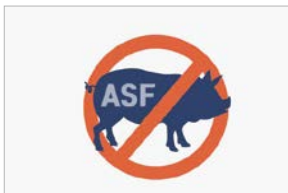
JUNE FIFA U-20 월드컵 폴란드 2019 준우승 |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2012년 런던 올림픽 사상 첫 동메달에 이은 세 번째 대한민국 축구 전설이 탄생했다. 대한민국은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로 U-20결승전에 진출해 전통의 강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을 꺾으며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3:1로 우승은 놓쳤지만,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FIFA 주관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JULY 노노재팬, 일본 보이콧 운동 확산 |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일간의 신뢰 손상'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보복 처사라 추측했다. 주요 수출규제 품목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로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던 제품들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보복성 조치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표출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일본 브랜드 제품을 사지 말고 일본여행도 가지 말자'란 '보이콧 재팬' 운동을 확산시켰다.



AUGUST 화이트리스트 | 백색국가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 주는 국가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가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9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28개국이었다.



SEPTEMBER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첫 발생 |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될 경우 돼지에게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지역에서 가져온 돼지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OCTOBER 태풍 '미탁'과 역대 10월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린 달 | 올해 10월은 1973년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10월 초 상륙한 태풍 '미탁'의 피해에 따른 것이었다. 미탁을 포함해 올 해 우리나라에 7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으며, '미탁'으로 특히 강원, 경상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올 해 태풍이 많이 온 것은 고기압의 위치와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제 여름 아닌 가을 태풍을 걱정해야 할 날이 온 것이다.



NOVEMBER 손흥민, 유럽축구 한국인 최다골 신기록 | 11월은 손흥민에게 격변의 달이었다. 경기 중 손흥민의 백태클로 인해 안드레 고메스 선수가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으로 손흥민은 울먹이며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3일 뒤 즈베즈다와 치른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유럽무대 122호, 123호 골을 터뜨렸고, 이로서 손흥민은 역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한국인 선수가 됐다. 특히 122호 골 세리머니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의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DECEMBER 눈과 얼음 축제의 향연, 겨울 | 12월 초부터 즐길 수 있는 빛축제가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열린다. 서울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과 DDP 겨울 빛 축제, 이외 각종 수목원과 허브아일랜드 등지에서 빛축제를 하니, 겨울밤의 화려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12월 말이 되면 얼음낚시 축제와 눈 축제가 이어진다. 평창 송어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유명하며, 대관령 및 지리산 눈꽃 축제도 매년 관광객들의 발길이 지속되고 있다. 올 겨울 다채로운 축제로 한 해를 마무리해 보자.

자료출처 연합뉴스, 농림축산부, 게이이미지코리아, 한국경제, 3.1운동100주년사업홈페이지, 노노재팬

사/서/칼/럼 어린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작은 행성을 위한 툰베리의 용기



**"모두가 기후위기가 우리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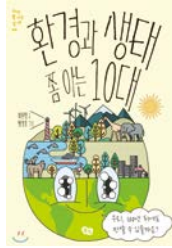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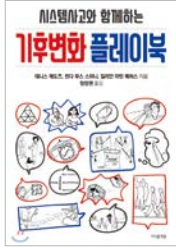
이렇게 그레타는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이 더딘 문제들을 공론화 시킨다. 기후위기를 막는 개인적인 실천 방법은 다양하게 알려져있다. 고기를 덜 먹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줄이거나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온전히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상승을 2도 훨씬 아래로 억제하자는 내용의 파리협약에 합의했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유엔환경기구는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이 약속한 의무를 다 지켜도 지구 온도가 3도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파리협약을 탈퇴했다.

남은 시간 동안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환경을 생각하며 읽어볼 만한 책들

1.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2. 기후변화 운동 행동에 옮겨보기



그레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운동에 개인의 행동에 한계를 느꼈고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치인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혼자서 학교 파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파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거대한 환경 캠페인이 되었다.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는 말처럼 작은 힘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레타가 보여준 것이다.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필요한 때이다. 2019년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말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2도씨가 높아지면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없습니다. 해수면이 65미터 상승하고, 생물종이 대량으로 멸종하여 대양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산성화될 것이며, 지구 전체는 불타오를 듯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섭씨 2도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18년 157일 뿐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Greta Thunberg)

- 1)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온난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운동)'을 촉발시킨 스웨덴의 16세 소녀.
- 2) 2019 노벨 평화상 후보, 국제앰네스티 최고 영예상인 '양심대사상', 노르망디에서 '올해의 자유상' 수상
- 3)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지도자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사서 이혜인

참고자료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연설영상 <https://youtu.be/BvF8yG7G3mU>

그레타 툰베리, 스반테 툰베리, 말레나 에른만, 베아타 에른만 저 / 고영아 역,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어디에나 도서관, - 싱가포르 오차드 도서관 -



독서를 위한 비밀 공간

싱가포르 오차드 도서관(Library@Orchard)에는 특별한 열람석이 있다. 3층 자료실 내부 계단에서 4층을 올라다 보면 쇼윈도 속 마네킹처럼 유리벽 안쪽으로 한 자리씩 자리를 차지하고 독서하는 사람이 보인다. 그 모습이 한없이 여유로워 보여 그 곳의 정체를 확인하려 4층으로 올라가보면, 그들이 앉은 자리는 서가에 가려져 정면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일부러 서가 사이를 살짝 비껴 안쪽을 확인해야 독서 중인 사람이 앉은 자리를 볼 수 있다. 이용자와 서가를 거닐던 사람은 서로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다. 어떤 시선에도 방해 받지 않는 좀 완벽한 열람석인 것이다. 일인용 소파와 그 위로 드리워진 하나의 조명, 그 단촐한 구성이 서가라는 벽을 만나 비밀스런 아지트가 되는 장면은 오차드 도서관에서 가장 인상깊었다.

의외의 장소에 도서관이,

싱가포르 시내 한중간 오차드 로드 가운데 위치한 대형 쇼핑몰 3, 4층이 오차드 도서관이다. 젊은 층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그에 맞게 성인 대상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동선이 복잡하고 사람이 붐비는 쇼핑몰을 헤매다 발견하게 되는, 조용하고 밝고 디자인이 세련된 공간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Design is for everyone.

디자인 특화 도서관이라 내부 인테리어와 디자인이 예쁘다. 내부 컨셉도 재미있는 디자인 요소가 많다. Design is for everyone. 이라는 문구 옆으로 3, 4층 자료와 공간 소개가 시선을 끈다. 'Let's gather to interpret and realize new possibilities.', 'Wrap yourself up with a good read and shut away the world.' 같은 재미있는 문구가 각 층을 소개한다.

3층은 만들고, 상상·공유하는 공간으로 나뉜다. 'make' 코너는 학생, 직장인 등 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늘 이용자로 가득 찬다. 시기별로 테마 전시와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열리는 'imagine' 공간은 방문 당시 '도서관 속 제본'이라는 주제로 제본 도구와 제본 과정을 전시 중 이었다. 'share' 공간을 에워싸는 흰색 서가는 완만한 곡선 모양으로 4층에서 내려다보면 파도가 치는 예쁜 무늬가 된다. 2014년에 이 장소가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태그를 받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었다.

4층 자료는 우리 삶 속에서 일, 생활, 여가 등 분야 주제로 모여 있는데 독특한 분류 디자인이 눈에 띈다. 각 테마를 형상화 한 간결한 로고가 서가마다 그려졌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자료 분야인 'product'는 '전구', 다양한 생활방식과 여가를 위한 자료 코너인 'life style'은 명상하는 사람의 상을 그린 방식이다. 책등에도 같은 디자인 라벨이 부착되어, 책을 찾는 사람 혹은 책을 정리하는 사람 모두를 직관적으로 해당 서가로 안내한다.



독서를 여행과 비유한다. 품을 들어 여행지로 떠나지 않더라도 책장을 여는 순간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낯선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게 해준다. 도서관을 품은 쇼핑몰, 쇼핑몰에서 만나는 도서관 속 비밀스럽고 예쁜 공간은 그 자체로도 독서와 닮아 여러 종류의 만족감을 주었다. 이런 도서관이라면 누군가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데 좋은 러닝메이트가 되어 줄 것도 같다. 현재 싱가포르 도서관은 쇼핑몰, 문화기관 등 시설과 복합화가 추세다. 이는 일상 속에서 책이라는 여행지로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가도록 도와준다. 늘 더운 기후와 크지 않은 영토를 가진 싱가포르에 잘 맞는 운영 방식인 것 같다. 그렇게 어디에서나 도서관이 일상 속에 뭉근하게 자리잡는다.

화성시립도서관 사서 김보라

세렌디피티(Serendipi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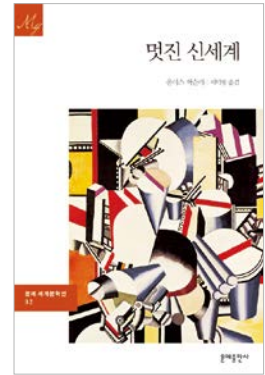
“뜻밖의 발견, 운 좋게 발견한 것”

우리는 한 권의 책을 읽다보면 무수히 많은 단어와 문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책을 무심코 읽다가 어느 한부분에서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
마음을 찌릿하게 만들고 나를 일깨워주는 문장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의 풍경을 그리는 저희 편집팀이 정성스레 옮겨놓은 문장들을 보고
여러분도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9 을 해의 책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 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 민음사 p.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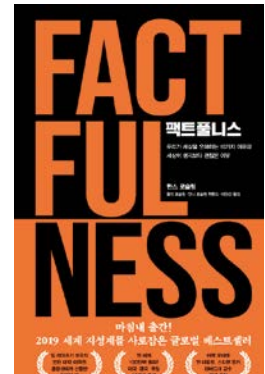


나이가 많으니 세상에 무뎌졌을 거라는 내 생각은 틀렸다. 손끝은 무뎌졌을지 몰라도 할머니의
감각은 초롱초롱 빛났다. 모든 것에 반응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할머니보다 훨씬 적게 살았으면서 나는 뭐가 그리 익숙했을까. 뭘 다 안다는 듯이 살았을까.
할머니 덕에 나도 '처음'이 주는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은 언제나 초면이 된다.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 위즈덤하우스, p.74

내가 좋아하는 생각에 허점은 없는지 꾸준히 점검해보라. 내 전문성의 한계를 늘 의식하라. 내 생
각과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 다른 분야의 새로운 정보에 호기심을 가져라. (중략) 내 생각과 일치
하는 사례만 수집하기보다 내게 반박하는 사람이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와 다른
그들의 생각을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훌륭한 자원으로 생각하라.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외 / 김영사, p. 267



“영매의 95퍼센트가 허풍쟁이에 사기꾼이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사람들이 영매들을 찾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양쪽 통행로가 분리된
채 있는 게 낫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당신이 목격한 그런 식의 부정적인 상호 간섭은
없어질 테니까요. 자, 이제 그만 가줘요. 당신이 관심을 가질 행사에서 내일 아침 다시 만나요.”
“응? 뭐 말이죠?”
“당신 장례식 말이에요. 살인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식장에 나타나겠죠.”
그녀가 태블릿PC를 가리킨다. 다음 문구가 선명히 보인다.
‘소설가 가브리엘 웰즈의 장례식, 오전 9시,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

『죽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방, p.199~200



문이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이다.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뜨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공감은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당신이 옳다』 정혜신 / 해냄, p.172



독서는 공부머리를 끌어올리는 최상의 공부입니다. 하지만 독서를 지식의 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독서 지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독서 지도의 출발점은 독서를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거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 책구루, p.176

내 꿈을 이룰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행복도 있어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얻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역사의 쓸모』 최태성 / 다산초당, p.296



약자는 위로받기보다 차별이 없는 존중을 원한다. 결점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다수와는 다른 조건을 가졌을 뿐 동등한 존재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맞은편 대열에서 응원을 보내기보다는 내 곁으로 와서 서는 것. 하지만 내가 자란 시절은 약점을 개인이 가진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다.

『빛의 과거』 은희경 / 문학과 지성사, p.115



아버지는 입는 것이나 소지품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유품으로 간직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아서, 나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천으로 된 동전 지갑을 기념으로 챙겼다. ...중략... 40년이다. 충분히 소중히 간직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처분했다고 해서 추억을 잃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원한 외출』 마스다 미리 / 이봄, p.84~85



언젠가 인용은 그런 말도 했다. 독자가 없는 소설 같은 건 없다고. 소설은 쓰이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독자를 만들어 낸다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소설을 쓰는 것으로 먹고 살 순 없지 않느냐고 내가 묻자 인용은 이렇게 답했다. 소설을 쓰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스스로 소설이 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읽는 만큼 기억될 것이다』 나일선 / 밤의 출항, p.98

사서 추천 도서

도서관 사서의 북컬렉션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고민 중 이신가요?

사서들이 저마다의 주제를 정해 좋은 책을 추천합니다.

10가지의 서로 다른 주제의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동탄북한문화센터도서관 최혜순 사서의 북컬렉션



별채

시절일기

기억을 위한 기록

기억은 불안정하다. 기억의 불안정성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기록'을 택한다. 기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그림으로 정리한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 좌절할 때도 있지만, 기록을 볼 때면 잊혀진 기억들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진다.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이혜인 사서의 북컬렉션



공부머리 만드는 그림책 놀이 가장 먼저 증명한 것들의 과학
일 년 열두 달

호기심

아인슈타인은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을 가지려면 호기심부터 가져야한다. 사소한 궁금증이 흥미와 열정을 만난다면 뜻하지 않은 즐거움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호기심은 어떤 길을 열어줄까?

남양도서관 유정미 사서의 북컬렉션



트렌드코리아 2020

세계미래보고서 2020

2020년이 온다

한해가 가고 새로운 2020년이 온다.

2020년 다가올 미래의 트렌드와 미래 산업을 분석하고 예상하는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다가올 미래를 알고 미리 준비하자!!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오소정 사서의 북컬렉션



고양이 생태의 비밀

반려견 행동 분석학

반려동물 탐구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그 이면에 유기되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동물의 습성을 안다면,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는 '당신'이라면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태안도서관 정윤지 사서의 북컬렉션



하루 5분의 초록

호수공원 나무 산책

우리 곁의 식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한 시대. 복잡한 일상 속 조금만 시간을 내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에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보며 소소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봉담도서관 홍의현 사서의 북컬렉션



우리가 몰랐던 우리음악 이야기 김승국의 국악, 아는 만큼 즐겁다

우리 음악으로의 초대

지루하고, 어렵고, 낯선 옛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국악. 하지만, 알고 보면 세련되고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우리음악 이야기. 두 책이 우리 음악인 '국악'의 숨겨진 매력으로 안내한다.

화성시립도서관 김보라 사서의 북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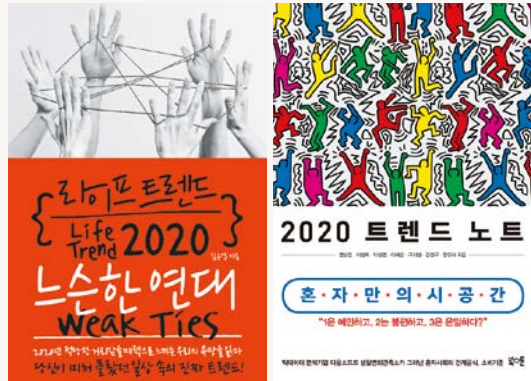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거야?

아무튼, 비건

비거니즘 veganism

비건(vegan)을 지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타 공존체에게 영향과 작용을 끼치게 되는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나뿐 아니라 모두가 생명체이자 연결체이며, 비건 지향이 세계를 지속가능한 문명으로 바꾸는 지적혁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들이다.

송산도서관 김민지 사서의 북컬렉션



느슨한 연대

2020 트렌드 노트

내년 트렌드를 잡아라

연말이 되면 내년 트렌드를 예측하는 도서들이 하나둘씩 출간된다. 위의 해인 2020년엔 어떤 분야가 주목받는지 궁금하다면 트렌드 관련 도서를 읽어보자.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김준형 사서의 북컬렉션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방송 뉴스 바로하기

R.I.P.

2019년 가을, 이십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십 수 년이 지났지만 대중과 언론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더욱 악(惡)해졌다. “악플을 처벌하면 악법일까?”,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라는 소재를 골라보며, 피해자들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악플과 악성 저널리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자.

진안도서관 이재훈 사서의 북컬렉션



안중근 평전

바람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다

10월 26일

1907년 10월 26일의 하얼빈에 올린 총성, 1979년 10월 26일의 궁정동에 올린 총성. 70년의 세월을 넘어 각각 민족을 향한 침략과 독재에 고한 총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역사와 정치를 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태안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아트프린팅 전시

태안도서관에서는 12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에서 출간한 작품들 중 일부 작품 속에 삽입된 원화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 폭의 원화를 감상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 해보는 건 어떨까?

일 시 2019.12. 2.(월) ~ 12.24.(화)

장 소 태안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대 상 도서관 이용자

문 의 031.223.4764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인형극

호두까기 인형의 비밀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원작으로 어린이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차이콥스키의 클래식 발레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알찬 구성의 인형극으로, 발레를 접목한 인형의 섬세한 발레동작도 감상해 볼 수 있다.

일 시 2019.12. 7.(토) 15:00 ~

장 소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3층 소회의실

신 청 2019.11.22.(금) 09:00 ~ 선착순 마감

대 상 6세 이상

문 의 031.8015.8213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패널시어터로 만나는 미운 오리 새끼

2019년의 마지막을 기념하면서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에서 '미운 아기오리 동동이' 패널시어터 클래식 음악동화 공연이 열립니다. 제목 속 아기 오리는 왜 미움을 받고 있을까요? 음악과 함께하는 패널시어터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 시 2019.12. 7.(토) 14:00 ~

장 소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2층 강당

신 청 2019.11.25.(월) 09:00 ~ 선착순 마감

대 상 4세 이상

문 의 031.353.8162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김학철 작가와의 만남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아이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수많은 돌발상황 때문에 힘든게 사실. 김학철 정신과 전문의가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육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줄 예정이다.

일 시 2019.12. 9.(월) ~ 10(화) 10:00 ~ 13:00(2회)

장 소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3층 모듬학습실

신 청 2019.11.25.(월) 09:00 ~ 선착순 마감

대 상 성인 30명

문 의 031.378.7344



다원이음터도서관 한진희 작가와의 만남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엄마표 영어를 위한 콘텐츠 가이드북'의 저자 한진희 작가가 다원이음터도서관을 찾는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와 가까워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림책, 챗터북, 미국교과서 등 어떤 책이 내 아이에게 맞는 영어책 활용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영어교육법에 대한 강연이 열린다.

일 시 2019.12.11.(수) 10:00 ~ 13:00

장 소 다원이음터센터 2층 대강의실2

신 청 2019.11.26.(화) 09:00 ~ 선착순 마감

대 상 성인 30명

문 의 031.372.9611



병점도서관 인형극

곰돌이의 크리스마스 선물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동물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유독 곰돌이만 몇 년 동안 선물을 받지 못해 우울해합니다. 알고 보니 곰돌이의 선물을 나쁜 늑대가 몰래 훔쳐가고 있었던 것. 과연 곰돌이는 늑대로부터 선물을 지켜 내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일 시 2019.12.14.(토) 11:00 ~ 12:00

장 소 병점도서관 2층 문화교실

신 청 2019.12. 3.(화) 09:00 ~ 선착순 마감

대 상 4세 이상

문 의 031.226.1822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인형극

스쿠르지와 성냥팔이 소녀 - 크리스마스 선물

돈 밖에 모르는 구두쇠 스쿠르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추위에 떨며 도와달라는 성냥팔이 소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꿈속에서 소녀가 얼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깬 스쿠르지 할아버지는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성냥팔이 소녀를 도우려 노력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과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요? 캐틀과 클래식 배경으로 즐거운 인형극을 경험해보세요!

일 시 2019.12.14.(토) 10:30 ~ 12:00

장 소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3층 강당

대 상 5세 이상

신 청 2019.11.27.(수) 09:00 ~ 선착순 마감

문 의 031.8003.0748



삼귀도서관 공연산책

12월 : 겨울이야기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삼귀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공연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12월 공연은 ensemble D:O:L이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겨울시낭송, 코렐리, 크리스마스 콘체르토, 비발디-사계 중 "겨울", 크리스마스 캐롤과 겨울노래 등을 피아노 5중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 겨울 삼귀도서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멋진 클래식 음악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일 시 2019.12.14.(토) 15:00 ~

장 소 삼귀도서관 2층 대강당

대 상 4세 이상

신 청 2019.12.03.(화) 09:00 ~ 선착순 마감

문 의 031.358.2102



송림이음터도서관 마술공연

겨울나라 마술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겨울나라 마술사' 마술공연이 열린다. 욕심 많은 눈사람 올라프가 잃어버린 코를 찾기 위해 겨울나라 마술사와 함께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기한 마술들을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일 시 2019.12.18.(수) 16시

장 소 송림이음터도서관 2층 커뮤니티 계단

신 청 2019.12.10.(월) 09:00 ~ 선착순 마감

대 상 도서관 이용자 100명

문 의 070.4949.3528



진안도서관 김잔디 교수 강연

심리학자에게 배우는 마인드풀 독서법 사용설명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잔디 교수가 진안도서관에서 '마인드풀니스(마음챙김)'에 관한 강연을 연다. 『마인드풀 독서법 사용설명서』 강연은 집중력 관리법, 자기관리 뇌 휴식법인 '마인드풀니스'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마인드풀 적용 독서법'과 '마인드풀 페어런팅(양육법)'에 관하여 현실적인 사례와 조언을 곁들임으로써 우리 집의 독서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 시 2019.12.19.(목) 10시 30분

장 소 진안도서관 4층 강당

신 청 2019.12.10.(화) 09:00 ~ 선착순 마감

대 상 일반 성인

문 의 031.224.9977



송산도서관

송년음악회 '교과서 클래식 음악여행'

송산도서관에서 12월을 맞아 송년음악회 '교과서 클래식 음악여행'을 진행한다. 연주를 맡은 엘림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사강교회의 아마추어 연주 단체로, 화성시 내 다수의 공연 경력을 갖고 있다. 이번 '교과서 클래식 음악여행'은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클래식 곡인 '봄의 왈츠', '장난감 교향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캐롤 또한 선보일 예정이다.

일 시 2019.12.21.(토) 15:00 ~

장 소 송산도서관 1층 강당

신 청 2019.11.20.(수) 09:00 ~ 선착순 마감

대 상 도서관 이용자 190명

문 의 031.355.5798



알면 편한 도서관 서비스

1 희망도서신청

사업내용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자료 구입 및 신청자 우선 대출서비스 / 1인당 3권(권당 30,000원 이하) 가능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관외대출회원
이용방법 홈페이지 및 도서관 자료실에서 신청

2 책바다(전국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타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 (택배비 이용자부담)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1인당 3권 14일(배송기간 미포함)
자료범위 전국공공도서관의 관외대출이 가능한 자료
이용방법 '책바다' 홈페이지(<http://www.nl.go.kr>) 회원가입 및 직접 신청
 책바다 신청 → 대출가능여부통보 → 택배비 결제 → 대출(지역공공도서관 방문대출) → 반납(지역공공도서관 방문 반납)

3 책나래(전국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대상 무료 책배달 서비스
운영대상 등록장애인
이용방법 거주지역 도서관 회원가입 후 책나래 홈페이지 (<http://cn.nl.go.kr>) 회원가입 및 승인절차 후 이용가능

4 책이음(전국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책이음(통합도서) 서비스에 가입된 전국 공공도서관을 화성시 공공도서관 회원이 별도 추가 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운영대상 화성시공공도서관 회원 누구나
이용방법 처음 이용자 안내데스크에서 인증절차 후 이용가능
 책이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ook.nl.go.kr>

5 두루두루(경기도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도서관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대상 무료 책배달 서비스
운영대상 화성시 거주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 확인)
이용방법 가까운 도서관에서 회원가입 → 두루두루 서비스 회원 가입 신청 → 담당자 승인 및 이용 가능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ibrary.kr>

6 내생애첫도서관(경기도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와 영유아대상 무료 책배달 서비스
운영대상 임신부(임신 8개월 이상)와 영유아(12개월 미만)
이용방법 가까운 도서관에서 회원 가입 → 내생애첫도서관 회원 가입신청 → 담당자 승인 및 이용가능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ibrary.kr>

7 전자도서관

사업내용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자료 (e-book, 동영상) 이용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도서관 → E-book 바로가기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1인당 5권 14일

8 원문서비스

사업내용 국회전자도서관 소장 학위논문 및 학술지 등 원문 DB 협력 공공도서관에서 무료열람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회원가입자
이용방법 화성시립도서관 내 협력체결도서관 방문 후 지정된 PC에서 국회도서관 접속

9 모바일 앱 서비스

사업내용 도서관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리브로피아'를 통한 모바일 회원증 이용, 도서검색 및 대출내역 확인 등 각종 서비스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회원가입자
이용방법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리브로피아' 어플리케이션 다운 후 가입 및 확인절차 후 이용가능

10 전자도서관(E-Book)

이용대상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 PC, 스마트폰, 태블릿기기
이용방법 홈페이지(www.hscityli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PC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도서관 → 사이버컨텐츠 스마트폰, 태블릿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검색 후 설치 → 도서관 검색 → 로그인 후 전자책 대출

도서관 이용안내



휴관일안내

구 분	매월 첫 번째 월요일 휴관도서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휴관도서관
정기휴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병점도서관, 정남도서관, 봉담도서관, 송산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태안도서관, 진안도서관, 남양도서관, 삼괴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송림이음터도서관
공통휴관	법정공휴일 /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하는 날 / 창립기념일	

회원가입안내

구 분	내 용
대 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재직자 및 재학생
구비서류	• 경기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발행 3개월 이내 등본 • 재직자의 경우 발행 1개월 이내의 재직증명서, 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청방법	•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휴대폰 인증 또는 민간 I-PIN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본인확인 후 동의 후 가입 가능 – 가까운 화성시립도서관을 방문(구비서류 지참)하여 회원카드 발급

이용 시간 안내

구 분	평 일	주 말
종합자료실	09:00 ~ 22:00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전자정보실	09:00 ~ 18:00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07:00 ~ 24:00	

도서대출안내

구 분	내 용
대출규정	• 1인 7권 14일(홈페이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반납 후 재대출 가능) • 회원증 재발급(7일 후 대출 가능)
연체규정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90일 초과 장기연체 시 반납일로부터 6개월 대출정지
도서분실	• 동일도서로 구입 후 반납 • 분실도서의 품질 및 절판 시 지정도서로 대체 변상



우리 동네 도서관 지도

